

호매칼럼



김명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봄이다. 하루쯤은 무료해 보자

바람이 시리다. 3월의 시린 바람은 겨울보다 더 춥게 느껴져 웃음을...

유난히 스카프를 좋아하는 벗이 있다. 먼 여행을 떠날 때 그녀는 가방에는 몇 장의 스카프와 머플러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스카프 하나로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벗은 지금도 발간 어디쯤에 선가 스카프를 휘날리며 이 봄을 만나고 있을 것이다.

가끔 그녀의 블로그를 보면 다양한 패턴의 스카프와 함께 이국적인 나라의 풍경을 만나는 것도 재미다. 때로는 스카프의 무늬를 통해 어느 나라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하며, 각 나라의 다양한 스카프도 담긴 이야기를 듣는 것도 흥미롭다.

무료한 봄날이다. 차창 밖으로 날은 파스해 봄으로 안내한다. 작년 같으면 벌써 매화꽃을 만나러 남해로 몇 번이나 길을 떠났을 것이다.

올해는 날이 추워 꽃소식도 늦고 봄이 왔다 하더라도 얇은 옷보다는 두꺼운 옷을 입고 스카프로 목을 둘둘 말고 거리를 나선다.

주말 오후 창이 넓은 카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무료한 하루를 보낸다. 파사로운 봄 햇살이 좋다.

햇살이 햇살을 밀어 창밖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빛이 참 좋다. 창밖으로 다양한 나무들이 보인다. 무료한 봄날을 보내며 나무에 대한 단상을 해본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는 목련이다. 목련꽃이 피면 꽃 뒤집을 해 먹는다. 소설가의 문장이 생각난다. 하얀 목련의 바삭함을 생각하니 참 좋다. 목련꽃으로 차를 만드시는 차명인은 목련 차는 목과 기관지에 좋다고 하시며 손수 짜주시던 정갈한 손이 고맙게 느껴지는 날이다.

그 옆을 보았더니 아카시아 나무다. 작년 늦은 봄날 아카시아 꽃나무 밑에 옹기종기 놀았던 청계(닭)가 떠오른다.

넓은 마음을 날개를 펼쳐며 넘나...

들던 청계의 몸놀림이 가볍다. 봄이 오긴 오나보다. 잠이 쏟아진다. 잠을 떨치기 위해 신문을 본다.

신문을 보니 '저는 휴가 내고 출근합니다' 라는 문구가 올라 왔다. 새 연차휴가가 3월에 부여되는 회사 시스템상으로 2월 한 달 동안 남은 휴가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

다수의 직원이 주중에 휴가를 내고 주말에 출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더 웃지 못할 상황은 전산상으로만 휴가를 내고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함으로써 휴가도 못 쓰고 수당도 못 받는 직장인들이 속만 타고 있다는 것이다.

비쁜 일상으로 좋은 취지로 한 연차사용의무제로 휴가도 못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억울한 현실이다.

1년 동안 쏟아지는 업무에 휴식도 제대로 못하면서 일을 하고 수당도 못 받는 직장인들의 휴식과 여유는 언제쯤 오려는지?

2018년부터는 일과 업무를 적당히 분배하는 워라벨 시대를 맞이해...

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므로 봄날에는 하루쯤은 자신의 위한 시간을 마련해 보자. 그 여유 속에서 무표한 일상을 만나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보자.

봄날은 하루 정도는 자신의 업무를 내려놓자. 스티브잡스는 "창조의 가장 큰 원천은 지루함인데 내가 그걸 사람들에게 빼앗았다" 라고 했다. 다행이 스티브잡스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여유로운 삶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알며 반성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서 다행이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혼자놀이 혹은 자유놀이를 통해서 키워지는 것이지 교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정진호 작가는 어릴 적 병원에서 몇 년을 지냈다고 한다. 그의 작품은 혼자 놀았던 경험과 건축을 전공했던 시선을 따라 모든 면을 함께 보는 것을 갖게 되었고 벽에 대한 관심이 색다른 그림책을 내놓게 되었다.

남과 다른 독특한 시선을 갖는 것...

은 무료한 시간을 가졌던 그의 삶이라고 작가는 전한다.

봄날 하루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파스한 차를 우려내 답소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다. 하루쯤 매화나무에 꽃잎들이 날리는 것을 지켜보고, 하루쯤 매화꽃잎이 날리는 것도 보는 것도 즐거울 일 것이다.

봄날에는 바람을 만나고 땅을 바라보자. 까치꽃이 피고, 냉이 꽃이 피고, 광대나뭇잎이 웃는 봄날에 그 꽃잎에 묻은 추억 하나쯤 만들어보자. 봄날에는 눈을 감아보자. 눈을 지그시 감고 봄날의 그리는 사람을 떠올리며 코끝에 스쳐가는 매화향기를 맡아보자.

내 삶속에 휴식을 위한 마음의 차를 마셔보자. 마음의 여유를 시간을 갖는다면 스스로 봄이 되어 당신의 몸과 마음속에 다양한 창의적인 삶이 만들어질 것이다.

봄이다. 하루쯤은 무료한 시간을 만들어보자.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봄철, 해빙기 산악사고 주의해야

봄의 문턱에 바짝 다가서면서 본격적인 산행 시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얼었던 산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는 안전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시기의 등산로는 높아진 기온으로 땅이 녹아 풀이 흔들리거나 미처 녹지 않은 얼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산행하며 특히 낙엽의 경우 겹겹이 쌓인 낙엽 아래 얼음이 가려져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봄철에 산행 중 낮은 기온으로 인해 갑작스런 심장마비도 유의해야 한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산행에 앞서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오후 4시 전에는 하산할 수 있는 가벼운 코스로 무리한 산행을 피하고 해빙기에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보온의류 구비하여 산행하도록 한다.

사고 발생 시 산악위험 표지판이나 지형지물을 눈여겨보다가 구조요청 시 알려주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봄철 해빙기 안전한 산행을 위해 등산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성(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신학기 자녀들에 적극적 관심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다. 최근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이나 유괴 등 강력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이 폭발하듯이 들끓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해방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이제는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건사고 발생 시 지속적인 관심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국민적인 과제로 생각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하굣길, 색어머니회나 어린이안전지킴이 등이 안전활동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이들의 수신호 등에 따라 주지 않고 오히려 경적을 울리거나 무시하면서 운행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해 곤란하다.

조금 바쁘더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 뒤 운행할 여유와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생각하

는 성숙한 군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초등학교 등 어린 자녀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때 절실히 필요한 것이 군민의 관심과 사랑이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하굣길, 학원가에서의 안전활동과 군민의 따뜻한 관심은 아동대상 강력범죄 예방에 효과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내 아이 처럼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이다. 초등학교 등·고교길, 학원가 등에서 안전 활동에 사랑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

/한상현(장흥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심폐소생술로 귀중한 생명을 지키자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란 무엇일까?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환자의 흉부를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치료기술로 정의되었으나 점차 심정지 환자의 치료방법이 발달하면서 심폐소생술은 단순히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만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모든 치료방법을 의미한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많다.

물놀이를 하다 의식을 잃은 사람들이나 관광동맹 환자, 심근경색 환자,

부정맥 환자 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된다.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막상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할 때에는 어떤 방법이든 구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각 소방관서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일환으로

심폐소생술 보급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소중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랑의 기적을 위해 지금 당장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해 심폐소생술을 배워 보길 바란다.

/박광윤(부성119안전센터)

Subscrip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onam Maeil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website,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Honam Maeil newspaper featuring a bamboo forest background and promotional text.